

일본 “일자리 편의점”으로 본 일·가정 양립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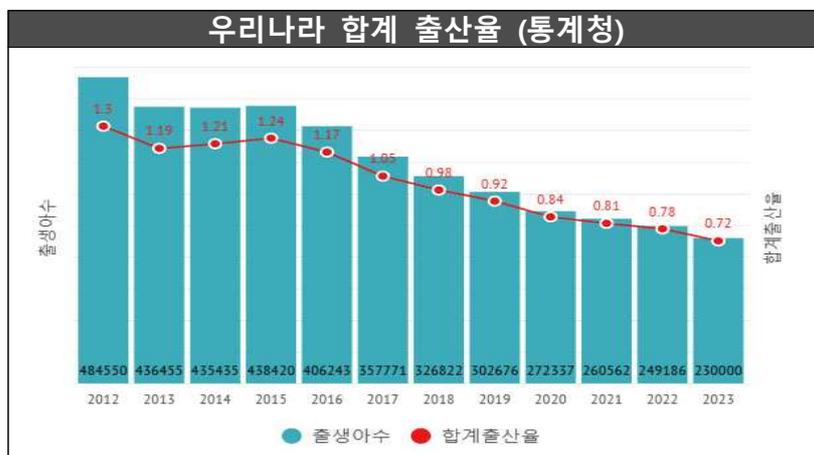
(빅데이터 여론 및 일본 사례 분석)

옥승철 부연구위원

I. 서론 (배경 및 목적)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 해결 필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는 임금 격차, 주거 문제, 입시 과열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가 혼인율 및 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상위층이 하위층보다 4배 이상 출산율이 높다고 한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는 집, 교육비, 양육비 부족으로 이어져 아이를 낳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한 저출산

특히 육아 부모의 경력단절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육아, 자녀 교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약 134만 명으로 경제적 손실은 연간 44조 원에 달하며 경력단절로 인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은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사례 분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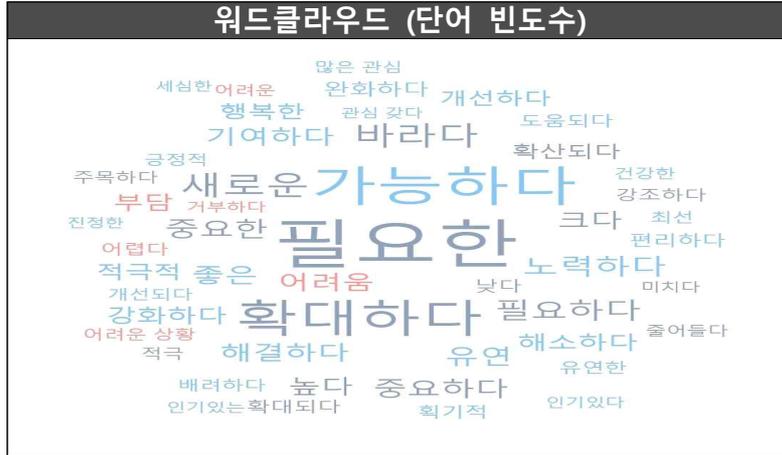
육아 부모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추가 소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난 8년간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저출산 위기에 봉착한 일본에선 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오카야마현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결하면서 양육을 위한 추가 소득을 쉽게 벌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편의점” 정책을 시행하여 일본 내 출산율 1위 (2.97)을 달성하였다. 이와 관련해 빅데이터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여 현황을 알아보고, 일본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정책 접근법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본론

II-1 빅데이터 분석

(긍부정 분석)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20~40대 부모 다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여론을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키워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필요한”, “확대하다”, “가능하다”, “바라다” 등이다.



키워드별 세부 글을 살펴보면 “정식 고용”이 아니더라도 “시간제” 근무를 통해 양육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부모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호소도 다수 있었다.

또한, “일·가정 양립”에 대해 긍정 감성은 45%, 부정은 16%로 긍정 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 [빅데이터 감성분석] 지난 1년간의 긍·부정 감성 분석



(온라인 커뮤니티 글 분석) “유연한 경제활동”과 “돌봄”을 원하는 부모

보수·진보·중도 온라인 커뮤니티 및 주요 맘카페, 여성 커뮤니티, 뉴스 댓글 분석 결과 공통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나타났다. 첫째,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활동 선호, 둘째, 일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다.

① 적게 벌더라도 유연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부모

돌봄과 일·가정 양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한 사람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에 드는 비용은 높은 물가로 인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정책에 있어서 정규직 고용 상태에선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을 원하는 여론이 다수 존재하지만,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규 고용으로 일을 하지 않고 밀착 육아를 하겠다는 부모들도 다수였고, 이들은 육아에 전념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유연하게 일을 하고 약 60~200만 원 등의 소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을 원하는 부모

여론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다른 요구사항은 근무 중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다. 특히 정식 고용이 아닌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도 잠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댓글

- “육아할 때 적게 벌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 “양육 중에 경제활동이 되면 애 낳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지도”
- “오늘 동기 애 엄마 모임 갔는데 다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아이 양육하며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일본의 ‘일자리 편의점’ 이런 제도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일하면서 아이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면”

II-II 일본 사례

일본 출산율 1위, 지방 도시 “일자리 편의점” 정책

여론의 요구를 요약하자면, 양육 중이라도 원하는 시간에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근무 중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호를 우리나라보다 미리 파악하여 정책화한 일본의 지자체가 있다.

최근 수년간 출산율이 감소한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낮은 출생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효과는 아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 마을은 자체 육아 정책으로 출산율 2.97명을 달성하였다. 나기 마을은 2016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였다.

부모, 지자체 공무원, 민간 지역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저출생 문제와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육아 중 편하고 빈 시간에 잠깐이라도 일하고 싶다”는 부모의 니즈를 파악하였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과거 직장 경력과 전공, 특기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기업으로부터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부모와 현지 기업을 연결, 육아 부모들에게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기업은 부족한 인력 확보, 부모들은 유연한 시간에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일자리 편의점’ 정책이 만들어졌다.

‘일자리 편의점’: 세부 정책 내용

지자체는 폐업한 마을 주유소와 땅을 구입하고 ‘일자리 편의점’ 사업을 위한 센터로 리모델링하였다. 이 건물에는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 위탁시설, 지자체 운영 사무실을 구성했다.

사업 방식은 지자체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직접 업무를 위탁받아 육아 부모에게 일자리를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일자리는 원하는 날짜, 시간 선택이 가능하며 최소 1일, 최대 3개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근무 장소는 ‘일자리 편의점’ 내 업무가 가능하며, 정식 고용이나 파견 형태가 아니어서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회사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

근무 방식은 1인 업무 및 2~5명 단위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 시스템을 채택한 이유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며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일을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가 완료되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개별 책정된다.

1:1 상담으로 경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가능

일자리 편의점에서는 퍼실리테이터가 1:1 맞춤형 직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특기, 경력, 미래 계획 등 심층 면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모두 기록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의뢰 업무인 마케팅, 홍보, 행정, 데이터 입력, 회계, 지역신문 기사 작성, 제품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또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

일자리 편의점 건물 (오카야마현)	팀 단위 업무 (데이터 입력)
	
출처 : https://toyokeizai.net/articles/-/268047	출처: https://www.chisou.go.jp/sousei/meeting/shoshikataisa-ku/h31-04-15-sankou1.pdf

서로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

일자리 편의점은 부모가 일하는 건물 내에 아이 돌봄 공간을 설치, 같은 건물에서 부모는 일하고 아이는 돌봄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웃 부모가 같은 공간에서 아이를 대신 봐줄 수 있으며, 아이를 돌보면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 다른 아이를 돌보고 쌓은 포인트로 다음 내 아이를 돌보게 하는 품앗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효과

① 경력단절 해소 및 양육 소득 증가

일자리 편의점 정책은 육아로 인해 정규직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집중하길 원하는 부모를 위한 제도로,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육아 부모가 정규직 퇴사 후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임금은 시간 단력 근무로 최소 월 60~200만 원 정도이며 육아비용에 보탬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젊은 부모의 수가 감소하였다. 일자리 편의점을 통해 경력을 이어가다가 어느 정도 양육 후 관련 경력직으로 정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오카야마현 나기 마을의 일자리 편의점은 전국에 호평을 받으며 현재 총 7개 지자체에 확산하였다.

② 지방기업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지방경제 활성화

일본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1%가 정규직 부족, 31%가 비정규직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Teikoku Databank, 2022). 특히 지방기업은 구인난이 더 심한 편으로 일자리 편의점을 통해 구인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편의점은 지방경제 활성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홋카이도 히가시카와 마을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일자리 편의점 실시 8개월 이후 약 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III. 결론 및 시사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향후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68명, 25년에는 0.65명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일본은 도쿄도가 출산율이 2023년 1.0 미만으로 떨어지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각한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며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2030년 합계 출산율 1.0명이 목표라고 발표하였다. 대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을 3개 핵심정책을 집중 분야로 꼽았다. 현재는 회사에 근무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일본의 지방 지자체처럼 밀착 양육을 원하는 비정규직 부모를 대상으로 유연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경북 구미도 일본의 일자리 편의점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육 부모 대상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에서 단기 일자리를 최대 3개월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경북도는 일자리 편의점을 통해 올해 양육 부모 1000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근무 중에 아이를 돌봄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경북 구미의 일자리 편의점 사업을 모니터링한 후 제도를 보완하여 전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 예산을 지원하여 지자체에 일자리 편의점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매뉴얼을 일원화하며 관련 지원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편의점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기업들과 연결을 해준다면 부모들은 양육을 위한 추가 소득을 얻고 지방 기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